

# ‘보잉 737-800’ 올해 외국서도 랜딩기어·유압 문제 여러번

### 에어인디아·TUI 여객기 회항...캐나다서도 착륙 과정 랜딩기어 결합 KLM기, 무안 사고 전날 노르웨에서 동체 착륙...182명 사상자 없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주항공 참사 기종인 ‘보잉 737-800’ 여객기가 유압장치 또는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고장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기종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에서는 불과 하루전에 제주항공과 같은 ‘보잉 737-800’ 기종이 동체 착륙을 했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항공뉴스 매체인 심플 플라잉(Simple flying)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전날인 지난 28일 오슬로 가르데르모엔 공항을 출발해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으로 가던 보잉 737-800 기종의 KLM 여객기는 오슬로 토르프 산데피요르드 공항에 비상 동체 착륙했다. KLM에 따르면 182명을 태운 이 여객기는 큰 소음이 발생한 후 비상착륙을 위해 항로를 바꿨다.

여객기는 동체 착륙에는 성공했으나 활주로를 벗어나 풀밭에서 완전히 멈춰 설 수 없었다. 착륙 과정에서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 항공기는 유압 장치 고장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노르웨이 현지 언론은 여객기의 왼쪽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 관찰됐다고 보도했다.

노르웨이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지 언론 VG는 조종사 중 한명이 “착륙 후에 우리는 비행기를 통제할 수가 없었다.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휘었고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여객기는 생산된 지 24년이 됐으며, 2000년 11월에 KLM에 인도됐다.

앞서 10월 11일에는 에어인디아익스프레스 소속 보잉 737-800 기종 여객기가 이륙 직후 랜딩기어 문제로 이륙 후 2시간 반 만에 회항한 일이 있었다. 여객기는 승객 150명 이상을 태우고 인도 티루치라팔리 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리트 사르자 공항으로 향했으나 유압 시스템 고장으로 랜딩기어를 접을 수 없었다. 이후 4000피트(약 1219m) 상공에서 머물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다 티루치라팔리 공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인도

인도민간항공국은 유압 장치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항공뉴스 매체 에비에이션 소스(aviation source) 뉴스에 따르면 7월 19일에도 TUI 항공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도 랜딩기어가 접하지 않는 문제를 겪었다. 여객기는 그리스 코르푸 공항으로 가기 위해 영국 맨체스터 공항에서 이륙했으나 이륙 직후 랜딩기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종사는 기체 상상을 중단했으며, 여객기는 상공에서 대기한 후 맨체스터 공항으로 복귀했다.

한편 캐나다에서도 랜딩기어 이상으로 여객기가 착륙 도중 위험한 상황을 맞았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AP통신과 CNN 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뉴펀들랜드 세인트존스에서 73명의 승객을 태우고 출발한 PAL 항공 AC2259편 여객기는 지난 28일 밤 9시30분께 노바스코샤 헬리팩스 스탠필드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랜딩기어 이상으로 추락하는 기체 결합으로 기체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을 맞았다.

사고기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멈춰섰으며 73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은 곧바로 버스를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PAL 항공 제주시인 에어 캐나다는 사고 기종이 쌍발기인 드 해발랜드 DHC-8-402(보바르디에 Q400)이며 착륙 도중 랜딩기어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스탠필드 국제공항은 사고 직후 일시적으로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시켰으나 90여분 만에 1개 활주로의 운영을 재개했다.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TSB)는 이번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기 승객인 니키 발렌타인은 착륙 도중 비행기가 상당히 흔들렸다고 기체 왼쪽에서 불이 났으며 창문으로 연기가 들어왔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30일 관계자들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수색 잔해 사이로 제주항공의 표식이 보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접나서 해외 못 가” 여행상품 예약 취소 폭주

### 대부분 내년 1~2월 예약자들 김해·인천공항 여행상품도 취소 지역 여행사, 매출 피해 ‘울상’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해외여행 취소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 여행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안공항 출국 상품뿐만 아니라, 김해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하는 여행상품마저 취소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여행사들은 내년도 상반기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30일 지역 여행업계에 따르면 내년 1~2월 해외 여행 예약자들의 계약 철회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이미 결제까지 끝난 여행상품을 위약금을 물고

서라도 취소하겠다는 전화로, 사실상 내년 연초 예약 전부가 취소됐다는 게 여행업계의 설명이다.

태국 여행 상품을 주로 판매한다는 광주지역 한 여행사 대표 A씨는 “벌써 10건 이상 취소가 접수됐다. 인원으로 따지면 250명 가량으로 매출로 보면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역 여행사 440여개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도 고객들이 여행 상품을 취소했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지역 여행사들은 무안공항 정기노선이 적은 까닭에, 1대 당 4~5억원을 들여 전세기를 확보하는데, 내년 1월은 물론 2~3월까지도 비행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며 “그나마 대형 여행사는 다른 공항에서 출발하는 전세기를 알아볼 수 있는데, 항공편이나 갈프 등 기획여행을 주로 판매하는 영세한 지역 회사들은 당분간 일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여행사 대표 B씨는 “해외여행이 취소되면 여행사 입장에서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울상을 지었다.

B씨는 “취소된 여행상품들 전부가 회사 직원들이 광주와 현지에서 시간과 돈을 들여 개발하고 판매했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며 “피해 금액이 산출조차 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B씨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B씨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공항이 폐쇄된 무안공항의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지만,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상품은 위약금이 발생하는 데도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변호사회, 피해자 법률 지원단 구성

### 항공사·한국공항공사·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 상담·후속 조치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단을 구성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광주·전남 지역 변호사 40여명으로 구성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지원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단은 희생자 유가족들의 법률상담, 후속 조치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맡는다. 무안국제공항 현장 상황실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관에 법률지원을 위한 창구도 마련한다.

항공사·한국공항공사·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 등에 대한 법률 상담과 후속 조치를 위한 법률 지원을 할 방침이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지낸 임태호 변호사가 맡고 김홍길 광주변호사회 목포지회장·박철 광주변호사회 부회장이 부단장으로 활동한다.

장정의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필요한 법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시, 유가족 1대 1 전담 지원

### 의사소통 채널 구축 장례·편의 지원...재난상황 정보 공유도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1대 1 전담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30일 시청에서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4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회의’를 열고 과장급을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해 유가족 편의 제공, 민원 해소, 장례 지원 등을 제공하기

로 했다. 전담 공무원은 우선 희생자 장례지원 등을 돕는다. 장례시설 및 5개 자치구와 협력해 유가족이 광주 지역 장례시설 이용을 원하면 즉각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유가족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물·담요·임시주거시설 등 생필품을 지급한다. 유가족에게 재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원

이 필요한 유가족이나 동행인 등 간접 피해자들을 위해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및 민원 해소에 전력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사고 여객기 탑승객 181명 중 광주 거주자는 81명(사망)이다.

한편, (사)한국심리학회 재난심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사고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심리학회 종합심리지원단은 분과학회인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등을 포함해 유관 분과학회의 지원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주세요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복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